



# 갯내음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화성(華城)

강 욱  
자유기고가

경기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화성(華城)은 예로부터 충·효·신의 정신을 간직한 충효의 고장으로 불려져 왔다. 또한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화성 땅의 지형은 대부분이 서쪽으로 비스듬히 기운 평지로 산이라고는 나지막하게 몇 개 뿔뿔이 흩어진 것들뿐이다. 거기에 발안천, 황구지천, 오산천 같은 큰 하천이 이 곳을 적시며 서해로 빠져들고 실오라기 같은 하천들이 곳곳에 뻗어있어 화성 땅은 예로부터 김포군, 평택군과 더불어 경기도의 곡창지대가 되었다.

화성은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었다. 한강 이남의 비옥한 영토로 당나라와 해상 문물교역의 교두보로서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고구려 때는 매홀, 신라 때에는 수성, 고려 때에는 수주였는데, 이름이 잇달아 물을 뜻하는 '수'나 '매'를 따서 지어졌다. 화성 땅은 조선시대에는 오늘의 수원시를 품고 있던

수원도호부의 땅 이었다. '화성'이라는 명칭은 조선 22대 임금 정조 때에 새로 덧붙여진 이름이다.

2001년 3월 시로 승격된 화성은 다양한 전통 문화유산과 바다, 갯벌,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풍요의 고장으로 도시민들의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최적의 관광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동과 정서의 축을 잇는 서해 낙조가 일품으로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한층 수월하게 이곳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화성8경(華城八景)'은 이 지역의 빼어난 경관 여덟 군데를 일컫는 것으로 옛부터 유명하다. 즉 제1경 용건백설(隆健白雪), 제2경 용주범종(龍珠梵鐘), 제3경 제부모세, 제4경 궁평낙조(宮坪落照), 제5경 남양황라(南陽黃羅), 제6경 입파홍암(立波紅岩), 제7경 제암만세(提岩萬歲), 제8경 남

양성지(南陽聖地)를 말하는 것으로 관광 화성의 진수(眞髓)를 엿볼 수 있다.

태안읍 안녕리에 위치한 용건릉은 사도 세자인 장조와 경의왕후(혜경궁 홍씨)를 모신 용릉과, 정조와 효의왕후를 모신 건릉을 합쳐 부르는 이름으로 효(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정조대왕은 뒤주 속에 갇혀 죽은 그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양주 배봉산에 있던 영우원을 현재의 화산으로 옮기면서 현릉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인 만큼 능의 치장도 새롭게 일신했는데 이는 19세기 왕릉 조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용건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데, 특히 능 전역에 뺨뺨히 들어선 노송에 백설이 덮힌 겨울 풍경은 세인들의 마음을 무아의 경지로 빠지게 하는 ‘용건백설’의 비경이다.

용주사는 정조의 효심과 더불어 잘 알려진 절이다. 용건릉 인근인 태안읍 송산리 성황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용주사는 원래 신라 때의 절 갈양사가 있었다고 전해온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명복을 빌기 위해 옛 절터에 새로 절을 지어 용주사라 한 것이다. 용주사에는 국보 제120호로 지정된 용주사 범종을 비롯해 금동향로, 청동향로, 전적수사본, 병풍, 후불탱화 등 많은 국보급 문화재가 있다.

절 한편에는 2개의 범종각이 있는데 그 중 작고 낮아 보이는 것이 국보로 지정된 용주사의 범종이다. 이 종은 고려 중기의 범종으로서 신라 범종양식을 충실하게 갖

추어 한국 종의 표본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대웅전 안에는 삼장보살도가 있으며 대웅전 앞마당에는 정조가 사도세자를 위해 심었다고 전하는 천연기념물 제 264호인 회양나무가 있어 눈길을 끈다.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로 불리워지는 제부도는 0.98km<sup>2</sup>의 작은 섬이다. 이곳을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섬을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장관을 연출해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환상의 섬이다.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섬은 12km의 해안선에 고운 모래벌이 펼쳐져 있고, 백사장 끝에는 크고 작은 암석이 어울린 세 개의 바위가 솟은 매봉(일명 삼형제 촛대바위)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제부도는 갯벌체험과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화성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굴, 바지락, 송어, 우럭 등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으며, 인근 지역의 유명한 송산 포도밭도 함께 둘러 볼만하다.

‘궁평낙조’는 제부도와 가까운 서신면 궁평리 해안에서 볼 수 있는 비경이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정서(正西)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송과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천혜의 명승지이다. 길이 2km, 폭 50m의 해변가에는 100년 이상 된 소나무 5천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서해안 지역에서 보기 드문 경치를 자랑하는 이곳은 특히 작열하던 태양이 서해바다로 질 때의 해송과 바다가 어우러진 황홀한 낙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며 넋을 잃게 만든다.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서 우정면 이화리까지 14.8km에 이르는 1,211ha의 남양간척지는 1973년 12월 남양만의 바다를 막아 남양방조제가 완공되면서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조성된 967ha의 남양호수는 새롭게 등장한 화성시의 관광명소이다. 남양호수는 농업용수를 공급해 줄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특히 겨울철의 얼음 낚시터로 유명하다. 남양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염실이 좋고 칼리성분이 많아 경기미 중 최고의 미질을 자랑한다. 광활한 남양들녘은 계절 따라 각기 변하여 풍요로움을 주지만 특히 가을의 황금 벌판은 남양호와 어우러져 넉넉함과 충만함을 더한다.

화성팔경의 제6경인 '입파홍암'이라 함은 우정면 국화리에 속해있는 작은 섬 입파도의 경치로 맑은 파도 속의 고운 백사장과 우뚝 솟은 붉은 바위가 조화를 이뤄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여름철 바다 낚시와 해수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섬 전체가 30% 이상의 급사면을 이룬 지형으로 남북 측의 해안은 가파른 절벽을 이루고 있다. 광활한 서해바다의 한가운데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듯 붉은 기암괴석과 파도의 갈매기가 어우러진 풍경은 한 폭의 산수화나 다를 바 없다. 아울러 사면에서 불어오는 바다 바람은 가슴속을 시원하게 쓸어 내리며 무아의 경지로 만든다. 입파도는 아직 못사람들의 때가 묻지 않은 청정 지역으로 인천항에서 4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에는 제암리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3·1 운동 때 일제가 만행을 저지른 곳이다. 제암리는 일명 두렁바위라고도 불리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그런데 1919년 4월 5일에 이곳 주민들이 5리 남짓 떨어진 발안 장터에서 격렬한 만세운동을 벌였다. 그러자 일본 헌병 30여명이 4월 15일 오후 2시경 제암리교회에 주민들을 모이게 한 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교회에 불을 지르고 무차별 총격을 가해 23명을 학살하고 30여 채의 가옥을 불태워 버렸다. 그 후 제암리 학살사건이 있는 지 63년이 지나서야 마을에서 4km 떨어진 도이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던 유해를 발굴하여 제암리교회 뒷동산 양지바른 곳에 무덤을 마련했다. 무덤 앞에는 이 사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와 전시관, 교육관,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해안을 접하고 있는 화성은 일찍이 외래종교의 유입이 빨랐다. 화성의 제8경 남양성지(南陽聖地)는 아늑한 자연경관을 지닌 순례지로 남양면 남양리에 있다. 1866년 병인년 천주교 박해 때 무명의 교인들이 순교한 거룩한 땅으로 성모님의 품처럼 포근한 느낌을 준다. 이곳은 1991년 10월 7일(로사리인 동정 마리아 축일)에 성모님께 봉헌되었고 한국 교회 사상 처음으로 성모 마리아의 순례지로 선포되었다. 이곳에는 남양 순교성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화강암의 대형 묵주알, 그리스도왕상, 성모동굴, 오솔길 소자상, 요셉성인상 등이 있어 한국의 대표적인 성지로 꼽히고 있다.

한편 송산면 고정리와 우음도 일대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공룡알 화석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1999년 4월 시화호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 약 300여 개의 공룡알 화석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갯벌이 육지화 되는 과정에 있는 이 지역은 약 1억 만년 전쯤 생성된 퇴적층이 쌓여 있으며 공룡알 화석과 함께 나무화석 및 미생물화석 흔적도 있다. 공룡알 화석지는 2000년 4월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되었다.

화성은 먹거리도 풍성하여 옛부터 ‘화성 8

미’로 불리는 지역 특산품이 있다. 즉 보약이 따로 없다는 화성 수라청 쌀, 당도가 전국 제일의 화성 꿀 포도, 무공해 청정수로 키운 느타리버섯, 유기농업으로 키운 꿀참외, 푸른 들과 청정자연에서 자란 한우고기, 무공해 황토에서 재배한 알타리 무, 청정 갯벌에서 생산한 맛의 진미 불낙지와 바지락을 ‘화성 8미’로 꼽는다. 이처럼 바다 내음의 풍광 속에서 갖가지 싱싱한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화성 관광이 주는 더한 매력이다. 🍷